

# 英語 派生語의 指導

黃 彦 澤 \*

## 目 次

I. 序 論	3.2. 派生語의 分析 形式
II. 派生語 指導의 必要性	3.3. 出力의 內容과 原義의 活用
2.1. 序言	3.4. 原義와 中心的 意味
2.2. 派生語의 定義	3.5. 中心的 意味와 周邊의 意味
2.3. 派生語 指導의 必要性	3.6. 基體의 活用
III. 派生語 指導의 內容 및 對策	IV. 結論： 要約
3.1. 序言	

## I. 序 論

本稿는 派生語 指導의 必要性和 또 派生語 指導의 內容 및 對策에 대해서 考察한 것이다. 派生語 指導는 中·高校에서 그다지 重要視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中學校 英語 教科書를 보면, 本文 외에 「듣기·말하기」 指導, 發音 指導, 構文 指導를 위한 事項은 各課에 揭載되어 있어도, 語彙 指導를 위한 事項은 揭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狀況下에서 派生語 指導에 力點을 둔다는 것은 指導 事項面에서 뿐만 아니라 指導 時間上으로 보더라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派生語 指導에는 이 指導 자체가 갖는 重要的 意義가 있다. 따라서, 비록 指導 事項에는 없다 하더라도, 또 指導 時間上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派生語 指導가 갖는 이 意義는 되도록 살려 나가는 편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뜻에서 第2章에서는 派生語 指導의 必要性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派生語 指導의 必要性을 認定한다 하더라도, 우선 問題가 되는 것은 그 指導 內容이다. 바꿔

\* 師範大學 教授

말한다면, 派生語를 통해서 무엇을 指導하느냐의 問題다. 또, 그 다음에 問題가 되는 것은 이 指導를 위해서 教師가 갖추어 놓아야 할 對策이다. 이 指導 內容과 指導 對策을 第3章에서 살펴 보았다.

派生語 指導는 中學校 第1學年부터 實施할 수 있다는 意圖下에, 以下 本稿에서는, 그 內部 構造를 說明하기 위해서 例舉하는 派生語는 모두 中學校 英語 教科書에 나온 單語로 限定했다.

## II 派生語 指導의 必要性

2.1. 序言. 이 章에서는 派生語 指導의 必要性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派生語의 定義부터 살펴보았다. 派生語의 定義에 사용되는 用語 중에는 學者間에서도 統一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用語 사이의 區別 問題도 여기에서 함께 다루었다.

2.2. 派生語의 定義. 派生語란 基體(base)에 派生 接辭를 添加함으로써 形成된 單語다. 따라서, 派生語의 構成 要素는 基體와 派生 接辭(派生 接頭辭, 派生 接尾辭)가 된다.

어떤 單語에서 모든 接辭를 除去한 나머지 部分을 指稱하는 用語로서는 위의 「基體」 외에 「語根」(root)과 「語幹」(stem)이 있다. 그런데, 이 세 用語에 대해서는 學者 間에서도 統一된 解釋이 없다. 위 派生語의 定義에서는 이 세 用語 중 「基體」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선, 이 「基體」가 다른 두 用語와 어떻게 다른가를 說明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들 세 用語의 定義를 내려 보았다. 이 定義는 Bauer<sup>1)</sup>에 依據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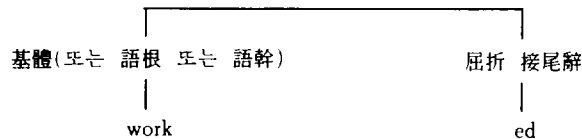
語根: 한 單語로부터 모든 屈折 接辭와 派生 接辭를 除去한 나머지 部分

語幹: 한 單語로부터 모든 屈折 接辭를 除去한 나머지 部分

基體: 한 單語로부터 한 (屈折 또는 派生) 接辭를 除去한 나머지 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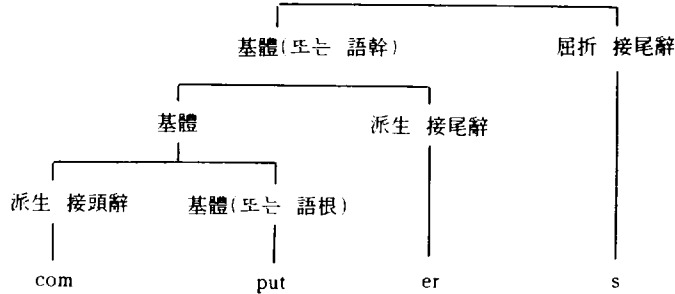
지금 work의 過去形 worked와 computer의 複數形 computers를 例로 들어, 위 세 用語 사이의 關係를 圖形으로 나타내어 보면 각각 다음의 分析圖과 같다. 이 分析圖은 語形成(word-formation)의 段階도 表示하고 있다.

(第1圖) worked의 分析圖



1) Laurie Bauer (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0-21.

(第2圖) computers의 分析圖



이들 分析圖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語根」 또는 「語幹」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用語를 모두 「基體」로 바꿔 놓을 수 있지만, 「基體」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用語를 「語根」 또는 「語幹」으로 바꿔 놓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 分析圖에 나타나 있는 結果를 위 派生語의 定義에 비추어 본다면, worked는 派生語가 아니고, 또 computers에서는 이 語形 중의 computer만이 派生語가 된다. worked, computers는 각각 work, computer의 屈折形이다.

**2.3. 派生語 指導의 必要性.** 派生語 指導가 必要한 理由는 다음과 같은 角度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그 內部 構造의 分析이 學生이 自力으로 하기가 몹시 어려운 派生語가 많기 때문이다. 語形 중에는 둘 以上의 構成 要素로 分析될 수 있는 것(가령, 派生語·複合語)과 그렇지 않는 것(가령, 單純語)이 있다. 後者の 語義는 「語形→語義」(가령, 「book→book의 뜻」)식으로 記憶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前者의 語義는 「語形→構成 要素의 뜻→語義」(가령, 「ancestor→an의 뜻, ces의 뜻, tor의 뜻→ancestor의 뜻」: 「classroom→class의 뜻, room의 뜻→classroom의 뜻」)식으로 記憶하는 것이 順理的이고 또 效果的이다. 그런데, 派生語 ancestor와 複合語 classroom을 比較해 볼 때, 後者の 構成 要素인 class와 room은 모두 獨立語이기 때문에, classroom이 class와 room으로 構成되어 있다는 것은, 특별히 指導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學生의 自力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後者の 構成 要素인 an, ces, tor는 모두 獨立語가 아니기 때문에 ancestor가 an, ces, tor로 構成되어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指導를 받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派生語 指導가 必要한 그 한 가지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派生語의 語義를 그 派生語의 內部 構造 分析을 통해서 誘導해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學生의 興味를 자아낼 수 있는 活動이기 때문이다. 單純語 book의 語義 「책」은 위에서 말한대로 「book→책」으로 記憶할 수 밖에 없다. 만일 모든 單語를 이런 식으로만 記憶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몹시 單調롭고 지루한 活動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複合語 classroom의 語義 「教室」은 「classroom→class(學級), room(방)→學級이 모여서 공부하는 방→教室」이라는 分析 過程을 통해서 誘導해낼 수 있다. 이 分析 過程에서 重要한 것은 room에 대해서 class가 形容詞的

(修飾語) 役割을 한다는 文法 事項이다. 이와 같은 分析 過程과 文法 事項이 있기 때문에, 學生으로서도 classroom의 語義 學習은 book의 語義 學習보다는 興味있는 活動이 된다. 派生語 ancestor의 語義 「祖上」은 「ancestor→an(앞), ces(가다), tor(사람)→앞에 가는 사람→祖上」이라는 分析 過程을 통해서 誘導해낼 수 있다. 그런데, 이 分析 過程과 위 classroom의 分析 過程과를 比較해 볼 때, 이 兩者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差異點이 있다. 곧, classroom 속의 class와 room의 뜻 「學級」과 「방」만 알고 있으면, 이 두 뜻을 합쳐서 「教室」을 誘導해내기는 比較的 쉬운 일인데, ancestor의 경우는, 설령 an, ces, tor의 뜻 「앞」, 「가다」, 「사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 뜻을 합쳐서 「祖上」을 誘導해 내기까지에는 생각을 꽤 많이 해야 된다는 점이다. 派生語 分析에는 마치 어떤 問題를 푸는 듯한 心理가 作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心理 作用은 곧 興味에 直結될 수 있다. 바꿔 말한다면, 派生語 分析에는 複合語 分析 時보다 興味를 자아낼 수 있는 要素가 더 있다는 것이다.

세째, 學生이 學習해야 할 語彙 중에서 派生語가 차지하는 比重은 學習이 進展되어감에 따라 점차 커질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現行 中學校 第3學年 英語 教科書 附錄에 中學校 全學年에 걸쳐 그 英語 教科書에서 사용된 單語 計 1,205語가 提示되어 있다. 다음의 表는 이 1,205語를 派生語·複合語·其他語로 나누어, 이들 單語의 學年別 使用 語數를 比較해 본 것이다. telephone 등 語頭 連結形과 語尾 連結形이 結合된 單語는 複合語로 다루었다.

學年別 語數 比較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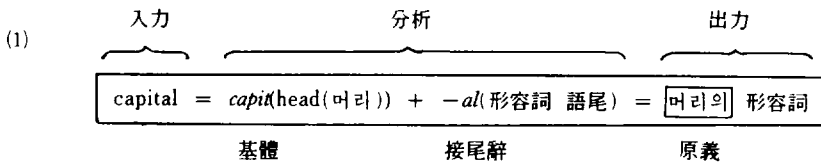
學年 種 類	1	2	3	計
派 生 語	35	93	152	280
複 合 語	34	39	32	105
其 他 語	312	261	247	820
計	381	393	431	1,205

이 比較表를 통해서, 複合語數는 學年別로 大差 없지만, 派生語數는 高學年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其他語數는 그와 反對로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中學校 全學年에 걸친 英語 教科書 各課의 本文 部分만을 對象으로 할 때, 派生語가 한 單語도 나오지 않는 페이지는 第1學年 教科書에서 네 페이지(pp. 9, 10, 36, 189), 第2學年 教科書에서 세 페이지(pp. 44, 75, 136), 第3學年 教科書에서는 한 페이지도 없다. 以上の 두 가지 調査 結果를 통해서, 中學校 英語 教科書의 範圍 안에서는 中學校 全學年을 통해서 派生語 指導를 점차 強化해 나가야 한다는 結論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英語 語彙力 增大法에 관해서 論하고 있는 책은 거의가 이 派生語 分析 能力의 重要性에 대해서 言及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中學校 英語 教科書를 통해서 내린 위 結論은 高校·大學은 물론, 그 以後에도 適用될 수 있는 結論이 아닌가 생각된다.

### Ⅲ. 派生語 指導의 內容 및 對策

3.1. 序言. 여기에서 말하는 派生語 指導란 學生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能力을 기르도록 指導하는 것을 말한다. 곧 派生語를 그 構成 要素로 分析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각 構成 要素의 意味를 綜合해서 그 派生語 전체의 語義(=原義)를 誘導해낼 수 있는 힘이다. 따라서, 以下 이 章에서는 대충 이 順序를 따라, 派生語의 分析 形式, 原義의 活用, 原義·中心의 意味·周邊의 意味 사이의 關係, 基體의 活用 등의 順序로 각각 이들의 內容과 또 이에 대한 教師의 對策을 살펴보겠다. 다만, 必要에 따라 다른 單語도 例로 들겠지만, 論述의 便宜上, 주로 capital이란 單語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3.2. 派生語의 分析 形式. 派生語의 分析 過程을 表示하는 方法으로서, 簡潔性을 重視, 다음과 같은 等式 形式의 圖式(큰 四角形 속)을 권하고 싶다.



곧, 分析 對象語를 「入力」으로 보고, 이 對象語를 基體와 接辭로 나누고서 각각 그 뜻을 쓴 것을 「分析」으로 보고, 이 對象語 전체의 뜻을 「出力」으로 보는 表示法이다. 줄여서 말한다면, 「入力 → 分析 → 出力」形式의 表示法이다. 또, 出力 段階에서 「머리」를 四角形 속에 넣은 것은 原義인 「머리」를 視覺적으로 열린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는 또 하나의 理由는 §3.3에서 論하겠다.

위의 (1)은 英英辭典이나 英韓辭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語源 表示法과는 다르다. 가령, 「新英韓大辭典」(語文閣, 1964)에서는 capital의 語源을 다음과 같이 表示하고 있다.

(2) ME; OF; L *capitalis*. of the head <caput. the head: ⇒chief

이 表示는 라틴語 *caput*(head)에서 *capitalis*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古代 프랑스語(OF)에서는 capital이란 語形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OF形을 中世 英語(ME)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參考로, capital과 同語源語에 chief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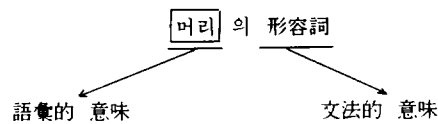
위 92는 派生語의 原義와, 또 그 語形의 變遷 系譜, 그리고 그 派生語와 同系 關係에 있는 單語의 提示 등에 重點을 둔 歷史 言語學的 語源 表示法이기 때문에, 이를 言語學的 語源 表示法

이라고 한다면, 위 (1)은 이를 教育的 語源 表示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에서는 基體와 接辭의 區分이 分明하게 表示되어 있고, 韓國語로 뜻이 쓰여 있고, 原義와 그 原義가 나온 過程이 곧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派生語의 學習 또는 指導를 前提로 한 語源 表示法이기 때문이다. 결국, 言語學的 語源 表示를 教育的 語源 表示로 바꿔 놓는 일 — 이것이 派生語 指導를 위해서 英語 教師가 해야 할 첫째 作業이 될 것이다.

이 作業을 위한 參考 資料로서 必須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OED(Oxford English Dictionary)*다. 이 *OED*는 基體와 接辭의 區分뿐만 아니라 語義의 變遷 過程까지도 다루고 있어, 原義와 中心的 意味를 찾아내는 데에는 다시없는 資料를 提供해 주기 때문이다. *OED*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1)과 같은 圖式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OED*의 個人 所有가 어렵다면, 적어도 各 中·高校別로 한 帙씩 이 *OED*를 갖추어, 英語 教師가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派生語 指導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英語 單語의 語義 指導에도 이 *OED*가 크게 參考가 되기 때문이다.

3.3. 出力의 內容과 原義의 活用. 圖式 (1)의 「入力→分析→出力」의 세 段階 중에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할 段階는 마지막 段階인 出力 段階다. 入力 段階에서는 該當 派生語를 쓰기만 하면 되니, 이 이상 더 생각할 것이 없다. 分析 段階는 *OED*만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런데, 出力 段階는 *OED*에도 여기에 쓸 內容이 明示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다. 따라서 英語 教師로서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이 가장 많은 段階가 이 出力 段階인 것이다.

出力 段階에서 나오는 意味는 이를 語彙的 意味(lexical meaning)와 文法的 意味(grammatical meaning)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sup>2)</sup> 지금 圖式 (1)의 出力 段階인 「머리 의 形容詞」를 이 두 가지 意味로 나누어 보면 다음의 (3)과 같다.



곧 「머리」는 語彙的 意味이고, 「(의) 形容詞」는 文法的 意味다. 결국, 語彙的 意味와 文法的 意味를 되도록 簡潔하게 結合시켜 놓은 것이 出力 段階가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意味 중 語彙的 意味, 곧 原義, 인 「머리」만을  속에 넣어서 얼른 눈에 띄게 한 것은, 이 單語만을 單獨으로 記憶할 때에는 이 原義 「머리」만을 記憶하고, 文法的 意味인 「(의) 形容詞」는 記憶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왜 文法的 意味는 記憶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면, 이 capital에는 形容詞的 用法 외에 名詞的 用法도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한다면, 脈絡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이 單語가 形容詞인지 名詞인지 決定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실령 이 單語가 形容詞라 하더라도, 그 形容詞의 여러 뜻 중 어느 뜻인지도 역시 脈絡

2) Laurie Bauer (1983). p.189.

없이는 決定할 수 없다. 결국, 出力 段階에서, 脈絡 有無에 關係 없이 항상 變化하지 않는 意味는 原義인 「머리」뿐이다. 따라서, 이 原義가 記憶의 對象이 된다는 것이다.

위 capital의 出力 段階는 語彙의 意味와 文法의 意味로 表示되어 있는데, 이와는 對照的으로, 出力 段階가 語彙의 意味만으로 表示되는 경우도 있다. teacher의 分析 圖式인 다음의 (4)가 그 한 例다.

$$(4) \text{ teacher} = \text{teach(가르치다)} + \text{-er(사람)} = \boxed{\text{가르치는 사람}}$$

이 (4)의 경우의 接尾辭 -er는 語彙의 意味인 「...하는 사람」과 文法의 意味인 「名詞 語尾」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出力 「가르치는 사람」에는 이 두 가지 意味 중 「...하는 사람」만 들어 있다. 이것은 이 「...하는 사람」이란 表現 자체가 名詞的 表現이기 때문에, 簡潔性을 重視, 「名詞 語尾」라는 表現을 아예 分析 圖式에서 省略해 버린 것이다. 결국, teacher의 原義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派生語의 原義를 表現할 때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原義는 되도록 分析 段階에서 사용한 語彙의 意味를 거의 그대로 사용해서 表現한다는 점이다. 가령, 위 (4)의 경우, 分析 段階에서 「가르치다», 「사람」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原義 表現도 이 두 表現을 사용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한 것이다. 原義를 이렇게 表現함으로써 그 原義 속에 構成 要素의 語彙의 意味를 거의 그대로 包含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原義 記憶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4. 原義와 中心的 意味.** 위에서 例舉한 capital, teacher의 原義 「머리», 「가르치는 사람」은 同時에 이들 單語의 中心的 意味이기도 하다. capital, teacher의 모든 周邊의 意味는 각각 이 「머리»,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誘導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派生語 중에는 原義와 中心的 意味가 서로 다른 것도 있다. 이를테면, salary의 原義는

$$(5) \text{ salary} = \text{sal(salt(소금))} + \text{-ary(形容詞 語尾)} = \boxed{\text{소금}} \text{의 形容詞}$$

에서 볼 수 있듯이 「소금」이다. 이 單語는 원래 「로마」 軍人에게 俸給 대신 주었던, 「소금」 살 돈 (소금은 그 當時 얻기 어려운 調味料였기 때문에<sup>3)</sup>)을 뜻했던 것인데, 그 以後 「俸給」이란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OED에 의하면, 이 單語는 英語로 들어올 때부터 「俸給」이란 뜻으로 들어왔다. 또, 이 單語가 갖는 「俸給」以外的 뜻도 모두 이 「俸給」으로부터 誘導해낼 수 있다. 따라서, 이 單語의 中心的 意味는 「俸給」이 된다. 곧, salary의 原義와 中心的 意味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原義와 中心的 意味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다음의 (6)처럼 分析 圖式을 만들고서,

3) *The Merriam-Webster Book of Word Histories* (1976). (Springfield, Massachusetts: G. & C. Merriam), pp. 210-11.

$$(6) \text{ salary} = \text{sal}(\text{salt}(\text{소금})) + \text{-ary}(\text{形容詞 語尾}) \begin{cases} = \boxed{\text{소금}} \text{의 形容詞 (原義)} \\ = \text{소금} \text{ 살} \text{ 돈} \\ = \boxed{\text{俸給}} \text{ (中心意)} \end{cases}$$

「소금」에서 「俸給」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기억하기에도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原義를 살렸고, 「소금」에서 「俸給」이 나온 과정이 재미있게 생각될 수 있고, 또 salt(소금)도 아울러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實際的인 言語 運用面에서 볼 때, 한 單語의 語義 중 核心的인 것은 中心的 意味다. capital이나 teacher에서처럼 그 原義와 中心的 意味가 同一한 경우이든, salary에서처럼 그 原義와 中心的 意味가 相異할 경우이든, 原義는 中心的 意味의 記憶을 돕는 일종의 발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3.5. 中心的 意味와 周邊의 意味.** 中心的 意味와 周邊의 意味와의 관계는 이를 多義語·派生語의 語義 學習에 이용할 수 있다. 바꿔 말한다면, 中心的 意味 하나만으로 多義語·派生語의 語義 學習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capital을 例로 들어, 이 單語의 中心的 意味 「머리」를 이용해서 이 單語의 몇 가지 周邊의 意味를 指導하는 例를 들어 보겠다. 이 指導 要領의 核心은, 비록 辭典에는 그런 解說이 없다 하더라도, 꼭 中心的 意味 「머리」가 들어가도록 指導한다는 점이다.

- (7) ① capital punishment → 우두  $\boxed{\text{머리}}$  罰 = 死刑  
 ② a capital (city) → 우두  $\boxed{\text{머리}}$  都市 =  $\boxed{\text{首都}}$   
 ③ a capital (letter) → 單語 첫  $\boxed{\text{머리}}$ 에 나오는 文字 = 大文字  
 ④ capital (stock) → 事業 첫  $\boxed{\text{머리}}$ 에 내어놓는 돈 = 資本(金)

지금, 中學校 英語 教科書에서 이 capital이 처음 나온 文章(中3, p.195)을 例로 들어, 다시 한 번 이 capital의 周邊의 意味를 指導하는 過程을 살펴보면,

(8) It [=Kyōngju] was once the *capital* of the Shilla Dynasty.

에서, capital의 脈絡은

(9) It was once the ( ) of the Shilla Dynasty.

다. 이 脈絡의 도움을 빌어, 우선 ( ) 속은 文法上으로 보아 It와 同一한 종류의 名詞, 곧, 都



市를 뜻하는 名詞가 아닐까 하는 推測이 나온다. 이 推測을 바탕으로, 위 (7)②의 解說을 통해서 「首都」라는 周邊的 意味를 誘導해 내도록 指導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 자체가 派生語인 capital에 다시 接尾辭가 添加되어서 새로운 派生語 가령, capitalize가 形成될 경우, 이 새로운 派生語의 語義는 어떻게 指導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말해 보겠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말한 식으로 指導하는 것이 좋다. 具體的으로 말한다면, capitalize는 크게 보아 「capital + -ize (· · · 化하다)」로 分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語義를 우선 「capital 化하다」로 指導한다. 그 다음은 이 「capital 化하다」의 capital이 위 (7) 중의 어느 項目에 該當하는가를 脈絡의 도움을 빌어 決定한다. 가령,

- (10) ① He's decided to *capitalize* all his money.
- ② The first letter of this word should be *capitalized*.

의 文章이 있다고 할 때, (10)①의 capitalize 속에 들어 있는 capital은 그 脈絡으로 보아 (7)④에 該當되고, (10)②의 경우는 (7)③에 該當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10)①과 (10)②의 capitalize는 각각 「資本化하다」, 「大文字化하다」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실령 capitalize의 語義가 「資本化하다」, 「大文字化하다」가 된다 하더라도, 이 單語의 語義를 「資本 + · · · 化하다」, 「大文字 + · · · 化하다」로 記憶하지 말고, 「머리→事業 첫머리에 내어놓는 돈→資本→資本化하다」, 「머리·單語 첫머리에 나오는 文字→大文字→大文字化하다」 식으로 記憶한다는 점이다. 얼른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꽤 煩雜한 것 같이 보일는지 모르나, 이렇게 하는 것이 capital의 語義가 갖는 하나의 體系를 始終一貫해서 지켜 나가게 된다는 점에서, 또 capital의 分析도 되풀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capital이나 capitalize의 語義를 長期記憶하는 데에도 꽤 效果的이라 생각한다.

**3.6. 基體의 活用.** 派生語의 基體는 語彙力 增大를 위해서 活用할 수 있다. 실은, 派生語 指導의 가장 큰 目的은 바로 이 基體의 活用을 통한 語彙力 增大에 있다. 그런데, 派生語 分析이라 할 때, 흔히 學論의 對象이 되는 것은 語根이다 (가령, capital의 capit).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基體란, 이미 §2.2에서 그 定義를 내린 바 있듯이, 한 單語로부터 한 屈折 接辭나 한 派生 接辭를 除去한 나머지 部分을 가리킨다. 따라서 capital의 경우, capit뿐만 아니라 capital 자체도 基體가 될 수 있다. capitalize, capitalism 등에서는 capital이 이들 派生語의 基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capital 자체도 여기에서 말하는 「基體의 活用」의 考察 對象이 된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말하는 「活用」의 뜻부터 살펴보겠다. 이 「活用」은, 어느 한 派生語를 指導할 때에는, 그 派生語의 基體와 關聯이 있는 單語도 함께 指導한다는 뜻이다. 가령, capital이란 派生語를 指導할 때에는, 이 capital의 基體인 capit, 또는 이 單語 자체의 語形 및 原義와 關聯이 있는 單語도 함께 指導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基體의 活用은 두 가지 面에서 考察할 수 있다. 하나는 한 單語의 基體의 形態가 다른 單語에서도 그대로 保存되어 있는 경우다. 가령, important, sport, export(모두 中學校 英語 教科書에 나오는 單語) 속의 基體 port는 이 세 單語를 통해서 그대로 保存되어 있다. 다음의 (11), (12), (13)은 각각 이들 세 單語의 分析 圖式을 筆者 나름대로 만들어 본 것이다.

(11) important = im-(in-(안)) + port(carry(運搬하다)) + -ant(現在分詞 語尾)  
 = **안으로 運搬해 오는** (原義)  
 = 안으로 運搬해 올 만한 價値가 있는  
 = **重要的** (中心意)<sup>4)</sup>

(12) sport = (di)sport = dis-(away(分離)) + port+(carry(運搬하다))  
 = **現 作業場으로부터 分離되어 있는 곳으로 自身을 運搬해 감** (原義)  
 = 平素 하고 있는 고된 일 以外の 일을 함  
 = 平素 하고 있는 고된 일 以外の 일을 함으로써 즐겁게 時間을 보냄  
 = **스포츠** (中心意)<sup>5)</sup>

(13) export = ex-(out(밖)) + port(carry (運搬하다))  
 = **밖으로 運搬하다** (原義)  
 = **輸出하다** (中心意)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첫째, 한 基體에 대해서 몇 個의 派生語를 指導하는 것이 좋을까, 둘째, 이들 派生語의 語義만 指導하느냐, 의 問題다.

한 基體에 대한 派生語數는 세 個 以內가 適當하리라 생각한다. 세 個까지는 그리 큰 無理 없이 同時에 記憶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세 個까지의 派生語는 되도록 中學校 全學年에 걸친 英語 教科書에 나오는 單語(中學生 指導時), 또는 中·高校 全學年에 걸친 英語 教科書에 나오는 單語(高校生 指導時) 중에서 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이미 배웠거나 또는 앞으로 꼭 배울 單語이기 때문이다. 이와 關聯해서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가령, 基體 port를 가진 單語로서 上記 important, sport, export의 세 單語를 택했다고 하는 경우, 이 세 單語는 항상 하나의 組를 이루도록 指導한다는 것이다. 곧, important를 指導할 때는 sport, export를 同時에, sport를 指導할 때는 important, export를 同時에, export를 指導할 때는 important, sport를 同時에 指導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세 번은 이 組를 指導할 수 있기 때문이요, 또한 同一한 것을 反復 指導하니, 學生으로 하여금 그만큼 이 組를 強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基體에 대해서 세 個 以內의 派生語를 指導할 때, 이들 派生語의 語義만을 指導한다면, 그것은 派生語 指導의 一部分을 하는 셈이 된다. 여기에서 이들 派生語가 들어 있는 例文의 必要性이 생긴다. 바꿔 말한다면, 派生語의 分析 圖式을 提示할 때에는, 그 派生語가 들어 있는 例文도 함께 提示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例文을 提示할 경우, 그 例文으로서는 되도록 英語 教科書에 나온 文章(또는, 必要에 따라, 그것을 약간 變形한 文章)이 좋다. 이미 배웠거

4) Joseph T. Shipley (1945). *Dictionary of Word Origins*. 2nd Edition. (New York : Philosophical Library). p.278.

5) Wilfred Funk (1950). *Word Origins and Their Romantic Stories*. (New York: Wilfred Funk). p.310.

나 또는 앞으로 꼭 배울 文章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11'), (12'), (13')은 각각 (11), (12), (13)과 함께 提示될 수 있는 文章이다.

- (11') Tomorrow is an *important* day. (中2, p. 25)  
 (12') What is your favorite *sport*? (中3, p. 51)  
 (13') He hopes to *export* flowers to foreign countries. (中3, p. 61)

基體의 活用을 考察하는 또 한 가지 面은 한 單語의 基體의 形態가 다른 單語에서 變形되어 있는 경우다. 가령, *cattle*이 基體 *capital*의 變形이요, *cap*이 *capital*의 基體 *capit*의 變形인 것이 그 한 例가 된다. 다음의 (14), (15)가 각각 *cattle*, *cap*의 分析 圖式과 그 例文이다.

- (14) ① *cattle* = *capital* (head(머리)의 形容詞)의 變形 = 人間 生活의 첫 [머리]에 오는 것  
 = 財産 = 動産 = 옛날 動産은 주로 家畜 = 家畜 中の [소]  
 ② He has 20 *cattle* on his farm. (*Longman Dict. of Contemp. Eng.*)  
 (15) ① *cap* = *capital*의 *capit*(head(머리))와 同系  
 = [머리] 덮는 것 = [帽子]<sup>6)</sup>  
 ② He always wore his *cap* low over his eyes. (中3, p. 212)

이 경우의 基體 關聯語는, 비록 그 基體의 形態가 變形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딘가 그 形態 사이에 類似點이 있다는 점과, 또 共通的인 原義에서 각각 그 語義가 나왔다는 점에서, 語彙力 增大뿐만 아니라 派生語 學習에 대한 學生의 興味 誘發에도 도움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모든 派生語에 適用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共通的인 原義」가 여러 派生語 또는 基體 關聯語의 譯語에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그 좋은 例라고 볼 수 있다. 가령, *popular*와 *population*을 例로 들 때, 이들 單語 속의 *popul*은 *people*(사람들)을 뜻한다. 따라서, 이들 세 單語의 原義는 모두 「사람들」이다. 만일,

- (16) Some *people* are eating their lunch. (中1, p. 121)  
 (17) Blue jeans have become more and more *popular*. (中3, p. 31)  
 (18) What's the *population* of Seoul? (中3, p. 188)

속에 나타나 있는 *people*, *popular*, *population*의 語義를 각각 「사람들」, 「人氣 있는」, 「人口」로 번역한다면, 이들 세 譯語에는 共通的으로 原義 「사람들」(漢字로는 「人」)이 들어가게 된다. *people*과 基體 *popul*은 그 綴字가 비슷하다. 따라서, *people*의 뜻이 「사람들」임을 알고 있는 學生이라면, *popular*, *population*의 上記 語義를 理解하고 또 記憶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데서 派生語 學習에 대한 學生의 興味를 誘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 C.T.Onions (ed.)(1966). *The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Etymology*. (Oxford: Clarendon Press), *cap.*

## IV. 結論： 要約

派生語 指導는

1. 그 內部 構造의 分析이 學生의 自力으로 하기가 몹시 어려운 派生語가 많고,
2. 派生語의 語義를 그 派生語의 內部 構造 分析을 통해서 誘導해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學生의 興味를 자아낼 수 있는 活動이고,
3. 學生이 學習해야 할 語彙 중에서 派生語가 차지하는 比重은 學習이 進展되어감에 따라 점차 커질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必要하다.

派生語의 指導 內容과 또 이에 대한 英語 教師의 對策은 다음과 같다.

1. 派生語의 分析은 「入力→分析→出力」形式의 圖式으로 表示하는 것이 좋다. 「入力」에는 分析 對象 派生語를 쓰고, 「分析」에는 그 派生語를 基體와 接辭로 나누고서 각각 그 뜻을 쓰고, 「出力」에는 그 派生語 전체의 뜻, 특히 그 派生語의 原義를 쓴다.  
이 分析 圖式을 만들기 위해서는 *OED*가 크게 參考가 되니, 이 *OED*는 적어도 각 中·高 校別로 한 帙씩 갖추어서, 英語 教師가 보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派生語의 原義는 되도록 分析 段階에서 사용한 語彙의 意味를 거의 그대로 사용해서 表現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構成 要素의 語彙의 意味를 原義 속에 거의 그대로 包含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原義는 *OED*에도 明示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OED*를 參照하면서 英語 教師 스스로가 이 原義를 決定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적지 않다.
3. 派生語의 原義와 中心的 意味가 相異할 경우에는, 原義와 中心的 意味가 둘 다 包含되는 表現을 英語 教師 스스로가 만들어, 이 表現을 學生으로 하여금 記憶하도록 指導하는 것이 좋다. 어떤 派生語든 그 原義를 살리는 記憶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4. 多義語와 派生語의 周邊의 意味를 나타내는 表現 중에는 꼭 中心的 意味가 들어가도록 指導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派生語의 語義가 갖는 하나의 體係를 始終一貫해서 지켜 나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지켜 나감으로써 그 語義를 長期記憶하는 데에도 꼭 效果的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5. 派生語의 基體를 指導할 때에는 이 基體와 語源의 關聯이 있는 單語도 함께 指導하되, 그 關聯語의 數는 可及의 둘 以內로 하는 것이 좋다. 또, 派生語와 그 基體 關聯語의 分析 圖式을 提示할 때에는, 그 派生語 또는 基體 關聯語가 들어 있는 例文도 함께 提示하도록 한다.

## Summary

### Teaching English Derivatives

*Hwang On-taek*

The internal structure of derivatives can be shown in the form "input-analysis-output". e.g., *capital*=*capi*(head)+*-al*(adjective suffix)=adjective of the "head". In this form the "input" stage shows only the derivative in English, the "analysis" stage the meaning of the base both in English and in Korean, and the "output" stage the primary meaning only in Korean.

The primary meaning should be given with the expression used for the lexical meaning of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derivative.

When the primary meaning differs from the central meaning, a teacher of English should try to join the two meanings together, e.g., "The meaning of *salary* is 'pay from *salt*.'"

In teaching the marginal meaning of the derivative, the teacher should try to make us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central and marginal meaning. For example, "The central meaning of *capital* is "head", and so the meaning of *a capital letter* is "a (large) letter at the *head* (not *beginning*) of a word."

The base of a derivative should be taught together with its one or two cognates. For example, *popular* should be taught together with *people* and *population*.